

순천대·목포대 통합 막바지 수순…정부 제출 신청서 준비

제12차 통합심의, 쟁점사항 논의
설 연휴 전 교육부 심의 결과 기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두 대학은 조만간 교육당국에 제출할 최종 통합 신청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제1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심의위 관계자와 포함 목포대, 순천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두 대학이 앞서 제출한 통합 계획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와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의위는 두 대학 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찬성 결과가 도출된 이후 열리는 첫 회의로, 앞서 순천대는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했던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 찬성을 50.34%로 이끌어냈다.

일반적인 대학 통합 심의위 회의가 10차례 가량 인데다 구성원 찬성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은 사실상 최종 통합 신청서 제출 전 마지막 회의로 해석된다.

두 대학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주 통합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두 대학은 조만간 통합 공동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두 대학은 통추위에서 심의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통합 신청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통추위 회의에서는 통합 대학 명칭도 정리될 예정이다. 통추위는 통합 대학 공모를 거쳐 '전라국립대'와 '국립전남연합대'를 각각 1, 2순위로 결정 했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변경 가능성이나오고 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전라국립대와 국립전남연합대를 최종 후보군으로 해 대학 구성원의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전라국립대가 더 높이 나타났지만, 이 교명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통합대학 교명은 대학 구성원들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해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당시 순천대의 재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교명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추위에서 최종 통합신청서가 작성되면 두 대학은 제13차 심의위 회의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교육부는 심의위가 작성한 결과보고서

를 토대로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설 연휴 전까지 통합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대 인력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날 5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내년도 의대정원을 비롯, 이후 필요한 의사 인력을 설 연휴 전까지 결정하기로 한 만큼, 두 대학의 통합 역시 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보정심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오는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를 고려한 의사 인력 배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정심은 이날 5차 회의에서도 의과대학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입학 가능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전남 국립의대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보다 이론 개교를 요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 위해서라도 통합이 2월 초경 결정되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해 국립의과대학 조기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적·재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에서 유가족을 위로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 '9부 능선' 넘었다…공공기여 협상 타결

사전협상 마무리 '행정절차 속도'
내달 5일 투자협약식 사업계획 공개

광주시와 광주신세계가 복합쇼핑몰(더 그레이트 광주) 조성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기여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신세계 측은 이날 '협상조정협의회'를 열고 광주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 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공공기여 산정액에 대해 이견을 좁힐 것을 도출했다.

구체적인 공공기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거 시설 규모도 일부 조정됐다. 당초 계획했던 510여 세대에서 사업성 확보 등을 이유로 10% 상향 조정돼, 최종 건립 규모는 560여 세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다음달 5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세계 그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대규모 투자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의 마지막 관문인 공공기여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지역 랜드마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취업난에 노후 불안…설 곳 없는 중장년 여성

광주·전남 고용지표 악화…경단녀 6만여명, 성별 연금격차도 심각

광주·전남 중장년 여성의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성별 연금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광주 8만1000명·전남 17만4000명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각각 3.1%(2000명) 늘고 4.6%(8000명) 줄었다.

전남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줄어든 건 2020

년 이후 5년만이다. 1년새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가 감소한 지역은 전남과 울산, 전북 등 3곳 뿐이다. 전국적으로는 6.3% 증가했다.

같은 시기 60세 이상 남성 취업자는 광주가 7.2%(6000명) 늘어난 9만1000명, 전남은 2.1%(4000명) 증가한 1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자녀를 키우는 여성도 취업난을 비켜나지 못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전남 고용률은 지난해 67.7%로, 지난 2023년

(69.1%) 이후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자녀 동거 여성의 고용률은 62.9%로, 전국 평균 64.3%를 밟았다.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광주 3만 3000명·전남 2만8000명으로, 각각 14.9%·12.7% 비중에 달했다.

고용 취약계층인 고령 여성은 불안한 노후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광주 45.14%·전남 47.84%로, 여전히 절반도 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65세 이상 남성의 연금 수급률은 광주 63.78%·전남 69.29%로, 격차가 20%포인트에 달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弔(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특히 정부는 이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들고 빈소로 향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은 종일 끊이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무 특보, 유시민 작가는 내내 빈소를 지키며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늦게 빈소를 찾았다. 정세운 전 국무총리, 윤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정와대 대변인을 지난 고민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내각 핵심 인사들도 뒤따라 함께 조문했다.

권양숙 여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빈소를 찾았다. 권 여사는 눈물을 보이는 유가족들을 끌어안기도 했다.

한편,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시신이 27일 오전 국내로 운구됐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지석풀라 주식회사("지석")에서는 2026년 1월 27일, 주식회사 헌진토건("헌")에서는 2026년 1월 27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지석은 그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지석"이 합병하고 "지석"은 존속되며, "지석"은 분할되는 회사("지석")의 재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연대책임배제), 이 분합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건 공고 게재일 이의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거나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합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지석" 주식회사 주식회사 헌진토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복릉길 36-28 대표이사 박 지석

"지석" 주식회사 헌진토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읍동길 30-3, 2층 201호 대표이사 정 민교

분할 합병 공고

(주권제출 및 채무자(의제화)제출공고)

주식회사 대경("대경"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백통신("한백"이라 한다)은 서기 2026년 01월 27일 각자 이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합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이의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거나기 바라며, 각자 이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자 이 주권은 해당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6년 1월 28일

"대경" 주식회사 대경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산리 61-3, 2층 대표이사 김 미 경

"한백" 주식회사 한백통신

전라남도 영광군 영봉읍 합령로 3454 사업자 등록번호 윤 시 원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지석("지석")에서는 2026년 1월 27일, 지석풀라 주식회사("지석")에서는 2026년 1월 27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지석"은 그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부)를 분할하여 그 분합된 부분과 "지석"이 합병하고 "지석"은 존속되며, "지석"은 분할되는 회사("지석")의 재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연대책임배제), 이 분합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건 공고 게재일 이의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거나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합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지석" 주식회사 지석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10-1, 5층(상동)

대표이사 이 선 회

"지석" 주식회사 지석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복릉길 36-28 대표이사 박 지석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지석("지석")에서는 2026년 1월 27일, 지석풀라 주식회사("지석")에서는 2026년 1월 27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지석"은 그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부)를 분할하여 그 분합된 부분과 "지석"이 합병하고 "지석"은 존속되며, "지석"은 분할되는 회사("지석")의 재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연대책임배제), 이 분합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건 공고 게재일 이의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거나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합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